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5.23(금) ~ 2025.5.29(목)

제공일시 2025 6 6 Fri

담 당 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 의 02 398 6432

ESG 동향 뉴스 클리핑

이슈 검색 기간: 2025.5.23(금) ~ 2025.5.29(목)

제공일시 2025 6 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

글로벌 정책

1. EU '탄소세' 2027년으로 연기... 적용대상도 '50톤 이상 기업'

-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적용시점을 2027년으로 1년 미룸. 또, 적용대상 기업도 연간 50톤 이상의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등을 수출입하는 기업으로 축소함
- 27일(현지시간) EU 회원국 장관들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CBAM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들이 보도함
- 이 개정안은 EU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협의 이후 확정됨.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CBAM 적용대상 기업들은 2026년부터 자사 제품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해야 함
-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등을 유럽에 수출입하는 기업들은 제품을 수출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충당하려면 2027년부터 CBAM 허가증을 구매해야 함

[\(뉴스트리 2025.5.28\)](#)

2. 美, 석탄·가스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제한 정책' 폐기 착수

- 미국이 석탄·가스 등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온실가스 배출 제한 정책을 폐기할 전망이다. 자국 에너지 안보를 강화한다는 차원임
- 2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환경보호청(EPA)은 석탄·가스 화력발전소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한하는 'GHG(온실가스) 규정' 개정안을 최근 백악관에 제출함. 이르면 다음 달에 최종 개정안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음
- EPA는 석탄·가스 화력발전소가 더 이상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봄

[\(더구루 2025.5.27\)](#)

3. 트럼프 '원전 재건' 시동... "신규건설 18개월 내 허가, 발전용량 4배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원자력 발전 르네상스'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음.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경쟁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원전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꾀하겠다는 전략임
-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원전 확대와 관련한 행정명령 4건에 서명함
- 이번 행정명령에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규제완화와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 등이 담김. -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위해 2030년까지 대형 원자로를 10기 착공하기로 함

[\(머니투데이 2025.5.24\)](#)

국내 정책

1. 해수부, 친환경 선박 기술 적용 범위 확대... '전기추진 선박기준' 개정해 현실화

- 해양수산부가 친환경 선박 기술 적용 범위 확대에 나섬. 해수부는 '전기추진 선박기준(해양수산부고시)'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힘
- 전기추진 선박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하고, 다양한 전기추진 선박 관련 신 기술을 활용한 선박이 건조되도록 하기 위해서임
- 주요 개정 사항은 △연료전지와 이동식전원 추진선박에 관한 기준 마련 △추진기관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기추진 핵심설비 이중 설치 요건 마련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배터리실 내 가스탐지기 및 소화기 설치 근거 마련 등임

[\(인천일보 2025.5.28\)](#)

2. 한·몽골 간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세부 이행규칙 첫 채택

- 외교부는 27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한국과 몽골간 기후변화 대응 협력 강화를 위한 제1차 한-몽골 기후변화 협력 공동위가 열렸다고 밝힘
- 이번 공동위는 대한민국 정부와 몽골 정부 간의 기후변화 협력에 관한 기본협정에 따라 양국 간 기후변화 협력협정 이행을 위해 개최된 첫 번째 회의로, 양측은 파리협정 제6.2조 이행 관련 국내정책, 양국 간 파리협정 제6.2조 국제감축사업 등에 대해 논의함
- 양측은 한국이 제안한 몽골 매립장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몽골 게르 지역 온실가스 국제감축 정부간 사업 등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함

[\(뉴시스 2025.5.27\)](#)

3. "기업 애로 현장서 듣는다"... 정부, 공급망 '통합지원데스크' 신설

- 정부가 공급망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정책기관과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로 함
- 기획재정부는 23일 공급망 정책기관 협의회를 열고, 수은·산은·신보·무보 등 10개 공급망 정책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본격 가동함
- 우선, 수출입은행 내에 '공급망 통합지원데스크'가 신설됨. 이를 통해 각 기관에 흩어진 금융·비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게 됨
- 아울러 기관 간 연계금융도 적극 확대됨. 대규모 공급망 프로젝트의 경우 단일 기관 대출이 아닌 공동 대출을 추진하고, 핵심광물 확보나 인프라 구축 등 고위험·장기 사업에 대해서는 공동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분산하기로 함

[\(서울경제 2025.5.23\)](#)

글로벌 기업

1. GM, 엔진에 1.2조원 투자... 전기차 전환 속도조절

- GM이 내연기관 엔진 공장에 8억8000만달러(약 1조2000억원)를 투자해 차세대 엔진을 생산함.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라 전동화 속도를 조절하는 모습임
-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GM은 미국 뉴욕주 버팔로 토너완다 엔진 공장에 8억8000만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힘. GM의 엔진 공장 단일 투자로는 최대 규모임. GM은 투자금을 6세대 엔진 V8 생산에 투입할 예정임

[\(이데일리 2025.5.28\)](#)

2. 북미 최대 바이오차 공장 출범... MS도 크레딧 선구매한 기술, 시장 진입

- 북미 최대 규모의 바이오차 상업화 시설이 캐나다 퀘벡주에 들어섬
- 에어렉스에너지(Airex Energy)는 22일(현지시각) 프랑스 기반 순환경제 기업 수에즈(SUEZ), 퀘벡 최대 민간 임업 기업 그룹 레마벡(Groupe Rémabec)과 함께 합작 설립한 바이오차 생산 공장 '카보니티(Carbonity)'의 준공을 발표함
- 이번 시설은 연간 최대 7만5000톤의 이산화탄소를 장기적으로 제거·격리할 수 있는 규모로, 바이오차 기술이 실증 단계를 넘어 산업용 탄소 감축과 탄소크레딧 발행이 가능한 상업 모델로 진입했음을 의미함

[\(임팩트온 2025.5.26\)](#)

3. 일본제철, 결국 US스틸 인수... 포스코·현대제철과 현지경쟁 불가피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기업 US스틸 인수를 승인함. 미국 현지 제철소 건립 등에 나선 국내 철강업체들과 직접적인 경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US스틸이 이 기업의 인수를 추진해온 일본제철과 협력관계를 맺게 된다면, “많은 고려와 협상 끝에 US스틸은 미국에 남을 것이며, 위대한 피츠버그시에 본사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힘

[\(대경일보 2025.5.24\)](#)

4. 토탈에너지스, 유럽 최대 태양광 단지 가동... 전환 전략 흔들림 없다

- 프랑스 에너지 대기업 토탈에너지스가 22일(현지시각) 스페인 세비야에서 유럽 최대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를 본격 가동함. 로이터는 주요 에너지 기업들이 고수익 자산 중심으로 전략을 재편하는 가운데, 토탈에너지스는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지속하며 전환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함
- 이번 가동된 프로젝트는 총 263MW 규모의 태양광 발전 단지 5곳으로, 연간 5억1500만kWh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음. 이로 인해 연간 24만50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이 저감될 것으로 예상됨

[\(임팩트온 2025.5.25\)](#)

국내 기업

1. 첫 LNG 전용선 띄운 포스코… 북미로 에너지 운송사업 확대

- 포스코그룹이 액화천연가스(LNG)운반 전용선을 처음으로 도입함. 한국~북미 LNG 수송에 투입, 북미 에너지 사업을 본격 확대한다는 계획임
-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3일 포스코그룹 최초의 자체 LNG 전용선인 'HL FORTUNA호' 명명식을 개최했다고 25일 밝힘
- HL FORTUNA호는 시운전 기간을 거쳐 하반기부터 글로벌 LNG 트레이딩에 투입됨
- 내년부터는 미국의 LNG 수출업체인 세니에르 에너지의 루이지애나 소재 세니에르 터미널과 광양 LNG 터미널 등을 연간 5회 이상 왕복하며, 포스코인터내셔널의 북미 장기계약 LNG 물량 운송을 담당함

[\(파이낸셜뉴스 2025.5.25\)](#)

2. LS에코에너지, 베트남 초고압 케이블 시장 선점 가속화

- LS에코에너지의 베트남 생산법인 LS-VINA가 베트남 전력청(EVN)의 송전망 구축 사업에 총 3300만달러(한화 약 454억원) 규모의 초고압 케이블을 공급한다고 28일 밝힘. 이번 계약은 3개의 EPC(설계·조달·시공) 업체와 체결되었으며, 220kV급 초고압 케이블이 공급될 예정임
- 이번 수주를 통해 LS에코에너지는 베트남 초고압 케이블 시장에서 본격적인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투데이에너지 2025.5.28\)](#)

3. 삼성물산, 'SMR 강판 콘크리트 벽체 모듈화 실증' 완료… “글로벌 시장 공략 본격화”

- 삼성물산이 소형모듈원전(SMR) 구조물을 모듈 단위로 시공하는 공법을 앞세워 글로벌 SMR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며, 일본 대표 중공업 기업 IHI사와 강판 콘크리트 벽체(SC·Steel-Composite) 모듈화 실증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고 밝힘
- 이번 실증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강판 사이에 콘크리트를 넣어 안전성을 높인 강판 콘크리트 벽체를 실제 크기로 제작함. 또, 공기 단축·품질 향상·비용 절감이 가능한 모듈화 공법을 적용해 SMR 건설의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음

[\(이코노미톡뉴스 2025.5.28\)](#)

4. OCI홀딩스, '북미 ESS 사업' CPS에너지·LG엔솔과 협약

- OCI홀딩스는 미국 자회사인 OCI에너지가 미국 텍사스 에너지 업체 CPS에너지, LG에너지솔루션 자회사 버텍스와 북미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에 관한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힘
- 이들 3사는 내년 말 완공을 앞둔 '알라모 시티 ESS LLC'를 시작으로 OCI에너지가 보유한 약 3GW 규모의 13개 ESS 프로젝트로 협력을 확대할 방침임

[\(문화일보 2025.5.27\)](#)

Weekend ESG Insight

이슈 검색 기간: 2025.5.23(금) ~ 2025.5.29(목)

제공일시 2025 6 6 Fri 담당자 한국생산성본부 ESG컨설팅센터 문의 02 398 6432

美 내무부, 최초 초고속 환경심사로 유타 우라늄광산 개발 승인

- 미국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가 캐나다 광물개발 기업 앤필드 에너지(Anfield Energy)의 벨벳-우드 우라늄·바나듐 광산 프로젝트를 긴급 승인 절차를 통해 승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각) 보도했음

- 유타주 산후안 카운티(San Juan County)에 위치한 광산으로, 일반적으로 수년이 걸리는 환경영향평가를 14일 만에 마무리하고 최종 개발 승인을 받은 것임

- 미 연방정부는 지난 4월 말, 에너지 및 광산 개발 프로젝트의 승인 기간을 최대 28일로 단축하는 긴급 승인 절차를 도입했음.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취임과 동시에 선포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의 후속 절차임

- 석유, 가스, 석탄, 우라늄, 지열, 바이오연료, 수력발전, 핵심 광물 등을 긴급 승인 대상으로 지정하고,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계획을 밝혔음. 환경영향평가(EIS)는 28일, 간이 환경평가(EA)는 14일 이내에 완료하는 방식이며, 태양광과 풍력 등 청정에너지는 이번 조치 대상에서 제외됐음. 미국의 전략광물 공급망 강화와 에너지 자원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규제 완화에 나선 것임

- 도그 버검 미 내무부 장관은 "이번 승인은 긴급 승인 절차가 처음 적용된 사례로, 단순한 민간 광산 개발을 넘어 미국 광물 안보 전략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해외 광물 의존도를 줄이고 국방, 의료, 에너지 분야에 필요한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음

-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2023년 미국 원전 운영사들이 사용한 우라늄의 99%가 러시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수입됐음. 바나듐 역시 절반 이상이 중국,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들여옴

- 세계원자력협회(WNA)는 글로벌 우라늄 수요가 2040년까지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음. 하지만 주요 생산국인 카자흐스탄의 공급이 점차 러시아와 중국으로 집중되고 서방으로의 수출 비중이 축소되면서, 미국과 유럽의 에너지 기업들이 우라늄 확보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음

- 에너지정보청(EIA)은 성명에서 "이번 급수 조치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대체 수입처 확보가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국 공급망 강화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측했음

- 벨벳-우드 프로젝트는 기존 우라늄 광산을 재개발하고, 인근 바나듐 매장지를 추가 개발하는 사업임. 대부분의 채굴 작업은 미 연방정부 소유 토지 지하에서 이뤄지며, 신규 지표면 훼손은 약 1만2000㎡로 제한됨. 광산 운영이 종료된 이후에는 복구 작업도 이뤄질 예정임

- 이번 광산 프로젝트가 상업화될 경우, 미국은 자국 내에서 전략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로이터는 "이번 승인은 미국이 해외 수입에 의존해온 우라늄 정광 확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음

(임팩트온 2025.5.27)